

한국경제인 만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이런 저런 계기로 자주 뵙는 분들도 있고, 자주 뵙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국내에서 볼 때와는 달리 인도에서 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랬지만, 해외에서 만나면 각별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상품이 국가대표

제가 국가대표라고 해서 4장 순방 마무리로 러시아를 가고, 브릭스 경제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도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국가대표가 저 인줄 알았는데, 저도 대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 상품인 것 같습니다. 공항과 호텔에서 보니까,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도 그랬듯이, 제일 반가운 것은 솔직히 ‘대통령 환영합니다.’ 라고 써놓은 것을 보면 반갑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기업의 이름과 로고가 더 반갑습니다. 길가에 붙어있는 기업 홍보 판을 보면서 가슴에 찡하게 와 닿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엄청 출세한 느낌입니다.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접을 엄청 잘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마음이 이루 한이 없습니다.

금융기관들도 와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다가 국민들에게 질책을 들을 일이 많습니다. 기업인들도 규제에 대해 원성을 하지만, 그것은 더 잘하라는 것이고, 욕심내서 하는 말입니다. 막상 기업들이 해외로 뺏어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국내에서 여러 얘기하는 것은 둘째고 자랑스럽고 보람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덕분에 러시아 방문 뒤 국내에 돌아가 아주 큰 일 하고 온 것 같은 칭송, 대접을 받았습니다. 인도에 가면 러시아만큼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벌여놓은 일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인도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인도시장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보고도 읽고 자료도 봤는데, 그것보다 폭이 훨씬 넓습니다. 수출입은행입니다. 금융기관들도 와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척 많은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서밋에서 논의된 것 일일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머릿속에 기업들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들이 줄줄이 수행할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다니라고 합니다. 누구는 어디 가서 협약체결하고, 누구는 FTA 얘기 크게 진전시키고, 누구는 여러 사업과 관련해 관련부서 장관과 만나서 협의하고, 소득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쁜 얼굴로 중간보고를 합니다. 저도 기쁘고, 장관들도 신바람이 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 열심히 하면 누구공이다 공치사 하지 않아도 잘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잘되면 기업인식 좋아질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희망가지고 열심히 일할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인도 지도자 경제인 만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자랑할 일 있으면 자랑해 주십시오. 유익하고 유쾌한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